

News

한은, 기준금리 동결... '빅컷'·'한국판 양적완화' 효과 지켜보자

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0.75%로 동결...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금융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긴급 유동성 대책도 본격 가동에 들어간 상황... 추가적 유동성 공급 조치 내놓을지에 관심

美연준, 정크본드까지 산다... 뉴욕증시 46년래 최고의 한주

머니투데이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Fed)가 파격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덕분...

사상 처음으로 '정크본드'(투기등급 회사채)를 매입하는 등 기업과 개인, 지방정부에 총 2조3000억달러를 투입키로 했다는 소식에 부실기업 줄도산 우려 크게 줄

KB금융, 푸르덴셜생명 품에 안는다..2.3조원 가량에 인수

한국경제

10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푸르덴셜생명 매각주관사 골드만삭스는 이날 KB금융을 푸르덴셜생명 인수자로 선정할 예정...

제시 가격은 2조 3000억원 안팎...코로나19 사태로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으나 최종적으로는 PBR 0.8 정도의 높은 가치 인정받아...

한은, 국책銀 발행채권 직매입

헤럴드경제

한국은행 국채 및 정부 보증채로 한정돼 있는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특수은행채 등 포함시키기로... 단순매매 대상 증권 확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특수은행 뿐만 아니라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도 단순매매 대상증권으로 포함... MBS 보유 규모가 크게 늘어난 은행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

오토바이 보험가입, 우린 안되는데... 배민라이더스, 특혜 논란

머니S

보험사들 손해율을 이유로 이륜차 종합보험 단체가입을 제한... 영세업체들은 보험사가 배민라이더스의 종합보험 인수를 받아준 것에 대해 '특혜'라고 주장

이륜차 배달용 종합보험료는 30대 남성 기준 900만원에 달해... 고액의 보험료에도 보험사들은 이륜차보험 신규 가입을 제한... 배달용 이륜차보험의 손해율 150%

교보생명의 강공... 이번엔 안전회계 검 고발

한국경제

딜로이트안진이 피의 의뢰를 받아 기업가치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인회계사로서의 공정·성실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

교보생명, "...안진이 산정한 풋옵션 행사가격(FMV)은 의뢰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도록 가담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산정할 수 없는 금액"

증안펀드 가동 개시... "목표는 코스피 1500 사수"

한국일보

정부와 금융권이 10조원 규모로 조성한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의 내부적인 운용 목표가 '코스피 1,500선 지키기'인 것으로 확인

최근 상승세인 증시에 당장 대규모 자금이 쓰이지는 않겠지만, 시장에서 향후 상당한 주가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S&P, 미래에셋대우 등급전망 '안정적→부정적' 하향

연합뉴스

S&P, "미래에셋대우의 자본 적정성이 향후 12~24개월 동안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는 견해를 반영했다"

"...지분투자 확대 계획,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의한 시장 리스크 증가, 코로나19 여파 속 영업환경 악화로 인한 수익성 감소 등이 원인"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